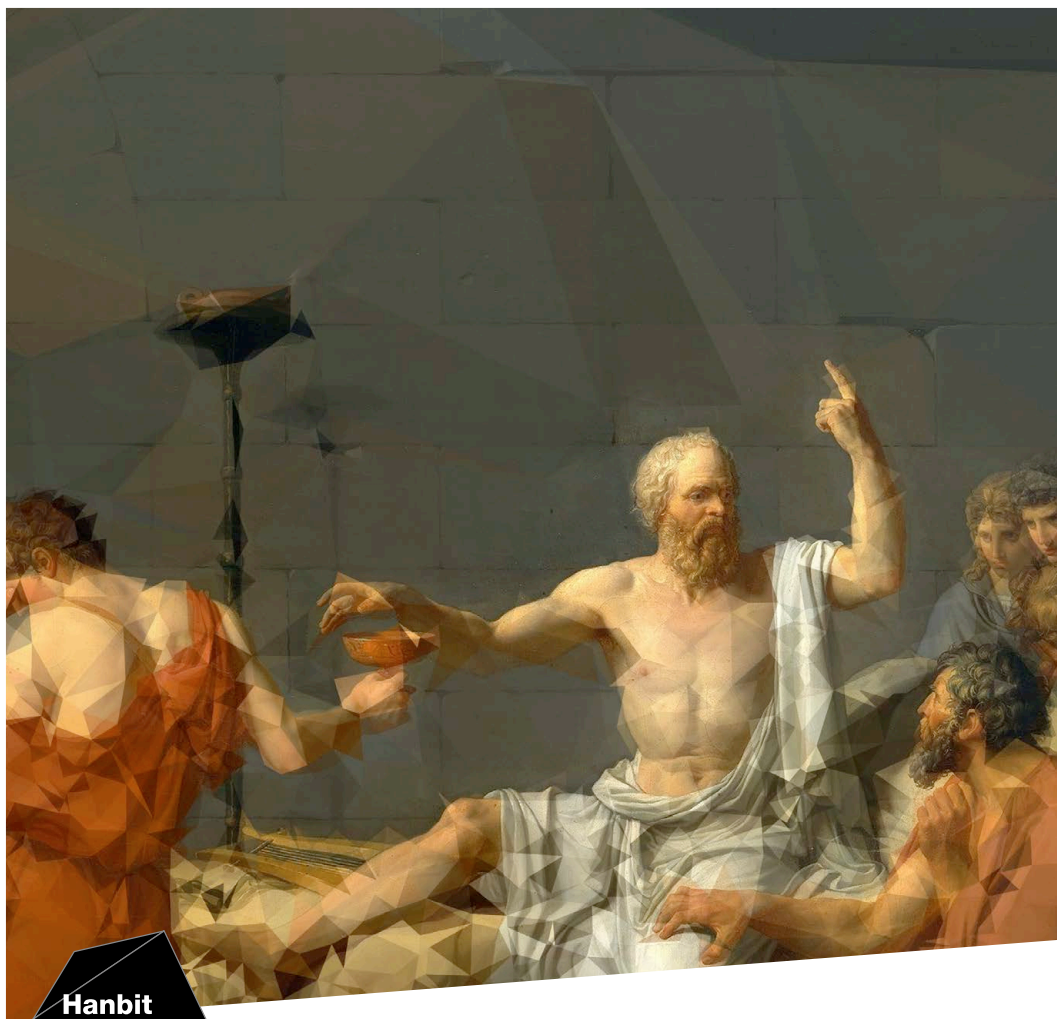




Hanbit
RealTime

IT, 인문을 만나다

이범석 지음

역사와 고전으로 엿보는 19가지 IT 키워드



IT, 인문을 만나다

역사와 고전으로 엮보는 19가지 IT 키워드

이범석 지음



소크라테스의 죽음(The Death of Socrates)

_ 자크 루이 다비드 Jacques-Louis David, 1787년 작

IT, 인문을 만나다 역사와 고전으로 엮보는 19가지 IT 키워드

초판발행 2016년 3월 31일

지은이 이범석 / 펴낸이 김태현

펴낸곳 한빛미디어(주) /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7길 83 한빛미디어(주) IT출판부

전화 02-325-5544 / 팩스 02-336-7124

등록 1999년 6월 24일 제10-1779호

ISBN 978-89-6848-802-3 15000 / 정가 10,500원

총괄 전태호 / 책임편집 김창수 / 기획·편집 정지연 / 교정 이미연

디자인 표지/내지 여동일, 조판 최송실

마케팅 박상용, 송경석, 변지영 / 영업 김형진, 김진불, 조유미

이 책에 대한 의견이나 오타자 및 잘못된 내용에 대한 수정 정보는 한빛미디어(주)의 홈페이지나 아래 이메일로 알려주십시오.

한빛미디어 홈페이지 www.hanbit.co.kr / 이메일 ask@hanbit.co.kr

Published by HANBIT Media, Inc. Printed in Korea

Copyright © 2016 이범석 & HANBIT Media, Inc.

이 책의 저작권은 이범석과 한빛미디어(주)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책으로 펴내고 싶은 아이디어나 원고를 메일(ebookwriter@hanbit.co.kr)로 보내주세요.

한빛미디어(주)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자 소개

지은이_ 이범석

서울대에서 수학을 전공했다. 대학 때 수학보다는 밤새워 코딩하는 즐거움에 빠져 삼성SDS에 들어가 처음 10년은 개발자로 살았다. 이후 10년 동안은 기술 아키텍처와 IT기술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십 대에 들어선 이후부터는 인문고전의 매력에 빠져 역사와 고전을 읽으며 위대한 지혜를 배우고 있다. 역사, 문학, 철학, 예술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쉬우면서도 재미있는 글로 풀어낸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2년여 동안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 'IT, 고전을 만나다'라는 칼럼을 기고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IT를 사랑하고 꿈꾸며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번역·저술 전문가 모임인 '고텝(GoDev)'의 멤버다. '신화와 역사를 통해 본 수학', 'IT Tech Insight' 같은 재능나눔 활동도 하고 있다



프롤로그

변화의 갈망 끝자락에서 만난 인문고전

한때 내가 없으면 조직이 잘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했고 그만큼 열정과 실력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런 자부심 넘치던 시기가 지나자 삶이 점차 나른해지고 일은 무덤덤하게 나에게 다가왔다. 40대에 들어서자 내 실력에 대한 믿음은 의구심으로 바뀌었고, 의구심은 점차 무력감으로 바뀌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 세상에서 나는 내 업무가 잘 돌아가는 것에 안주하며 살고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IT 세상에서 내 주위에만 희미한 불빛을 위태롭게 켜놓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건강마저 나를 옴아매고 있었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는 나에게 질병의 탈을 쓴 악마는 끊임없이 속삭였다.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아니 하지 마! 건강이 더 나빠질 거야. 그냥 현재에 만족하고 살아!”

그러나 세상은 안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안주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IT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다. 무력감은 이제 위기의식으로 바뀌고 있었다. “내 기술을 언제까지 써먹을 수 있을까?”, “세상에 나가도 쓸모가 있을까?”,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에겐 변화가 절실했다.

어느 날 지인의 추천으로 우연히 집어 든 책이 있었다. 바로 사마천의 『사기』다. ‘고전’에 대해 “누구나 읽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라고 마

크 트웨인이 말한 것처럼, 나 역시 『사기』에 대해서는 수없이 들어왔지만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책이었다. 그러나 사마천이 죽음보다 더한 치욕과 좌절을 딛고 『사기』를 집필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사기』는 나에게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열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주인공에게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깊이 빠져들었다. 그 뒤로 인문고전을 본격적으로 읽어 나갔다. TV 대신에 책을 들고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출퇴근 때나 주말에 산책할 때는 고전을 읽어 주는 팟캐스트나 인문학 강의를 들었다. 덕분에 인문학을 더욱 재미있게 접할 수 있었다. 책의 주인공은 가까이 나의 든든한 멘토가 되어 주었고, 어떤 자기계발서보다 강한 동력을 주었다. 일상이 더 바빠졌음에도 일은 전보다 즐거웠고 더 여유 있게 되었다. 일이 즐거워지자 무심했던 IT 기술의 변화에도 더 관심을 두고 바라보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조금씩 변해갔다.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보낼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과 바꾸겠다

『사기』에 빠져있을 무렵, 우리나라에는 인문학 열풍이 불었다. IT업계는 더욱 그랬다. 2011년 스티브 잡스가 iPad 2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했던 말이 계기가 됐다. ‘테크놀로지’와 ‘인문학’이라는 두 개의 표지판이 교차하는 화면 앞에 서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애플의 DNA에 있는 것은 오직 기술만이 아닙니다. 인문학과 결합된 기술, 인간성과 결합된 기술은 우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구글이 신입사원 6천 명 중에서 5천 명을 인문학 전공자로 뽑았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애플이나 구글의 인문학 중시 경영은 한국의 IT업체와 개발자를 인문학으로 이끌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융합형 개발자는 높은 인기를 구가했고 심지어 개발

을 모르는 인문학 전공자를 찾는 IT기업도 늘어났다. 또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학 소양을 묻는 문제나 역사를 통해 설명하라는 식의 문제도 등장했다. 예컨대 “몽골과 로마 제국의 성장 과정과 이를 통해 OOO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방안을 제시하라”와 같은 문제였다.

그러나 IT업계에 종사하는 수많은 개발자의 상황은 달랐다. 촉박한 개발 일정으로 인해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까지 반납한 채 일에 파묻혀 있었다. 일에 치이다 보니 자신의 업무 외에는 관심 두지 않게 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을 쫓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같은 IT 신기술은 그저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었다. 또한, 인문학이 IT에도 중요하고 인문학과 기술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다 치부해 버리거나 실천으로까지 옮기지는 못했다. 그것이 많은 IT인이 처한 현실이었다. 예전의 나 역시 그랬다.

융합의 시대, 인문으로 IT하라

이 책은 오늘도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IT인을 위한 책이다. 특히 일정에 쫓겨 온종일 코딩에 몰입하느라 IT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신경 쓸 시간도 없는 젊은 개발자, 그리고 당장 업무수행에는 문제없지만 세상 앞에 나가면 내세울 실력 하나 없는 나이 든 IT인, IT 트렌드를 이해하고 인문교양을 쌓고 싶어 하는 미래의 개발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는 요즘의 시대에 맞춰 인문교양과 IT기술을 모두 다루었다. 2천 년의 내공을 가진 인문고전과 지금 이 순간도 변화하고 있는 IT기술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내 읽는 재미를 느끼도록 구성했다. 또한, 인생 스토리가 드라마틱하고 역동적인 주인공을 선택했다. 딱딱한 고전은 지루함을 줄 수 있기에 될 수 있으면 피했다. 이 책 자체가 인문과 기술을 융합한 산물인 셈이다.

이 책은 지난 2년여 동안 IT 전문잡지인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 기고한 칼럼을 토대로 내용을 더 보강해 만들었다. 뜻내기 필자에게 글 쓰는 재미를 알게 해준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 감사드린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개발자 길을 지켰던 이 잡지가 장기 휴간에 들어간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리고 제 글의 저력을 믿고 책으로 출간할 것을 제안하고 또 멋지게 만들어 주신 한빛미디어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IT 세상이 변하고 있다. 이제는 융합의 시대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하고, 기술과 기술, 기술과 디자인이 결합하고, 제품에 인간을 담아야 한다. 관계없어 보이는 두 분야를 엮어낼 줄도 알아야 한다. 이 책을 펼친 독자는 이제 인문교양을 쌓고 통섭형 IT 인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디딘 것이다. 교양을 쌓길 바라든, 새로운 IT 기술을 알고 싶어 하든, 내적 변화를 바라든 그것은 독자의 몫이다. 그러나 그 걸음이 자신의 복극성을 향한다면 그것은 작지만 큰 걸음이다. 장자가 말했듯이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기 때문이다.



차례

저자 소개 ----- 03

프롤로그 ----- 04

서양편

카이사르 암호와 RSA 알고리즘

카이사르, 3월 15일을 조심하라 _ 15

카이사르, 세상의 중심이 되다 _ 16 / Beware the Ides of March _ 22

카이사르, 암호를 개발하다 _ 25 / 공인인증서에 적용된 RSA 알고리즘 _ 28 / 참고자료 _ 29

세상이 원하는 인재, 통섭형 인재

거울 필체로 쓴 7,000여 장의 메모 _ 31

스승의 붓을 꺾게 만들다 _ 33 / 과학과 인간을 탐구하다 _ 34

레오나르도 다 빈치, 살아있는 전설이 되다 _ 38 / 21세기형 인재, 통섭형 인재 _ 40

관심 분야를 넓히고 지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라 _ 43 / 참고자료 _ 45

로봇이 기사 쓰는 시대, 로봇 저널리즘

희대의 허풍쟁이인가? 천재인가? _ 47

마르코 폴로, 24년간 동방을 여행하다 _ 48 / 허풍쟁이 이야기꾼인가? 아니면 천재인가? _ 51

동방견문록, 아메리카 발견에 기여하다 _ 55 / 로봇이 기사 쓰는 시대 _ 57

로봇의 시대에 살아남기 _ 61 / 참고자료 _ 63

디지털 제국 구글과 빅 브라더

알렉산드로스, 대제국을 세우다 _65

세계 정복의 원대한 꿈을 꾸다 _ 66 / 세 번의 전투로 100만 대군의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다 _ 70 / 제국의 몰락 그리고 새로운 시작 _ 76 / 구글, 디지털 제국을 세우다 _ 78
빅 브라더 vs 사악해지지 말자 _ 81 / 참고자료 _ 83

진격의 거인, 중국 인터넷기업 3인방

한니발과 창조적 모방자 스키피오 _85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다 _ 86 / 한니발, 창조적 전략으로 영웅이 되다 _ 89
창조적 모방자, 스키피오 _ 91 / 진격의 거인, 중국 BAT의 대공습 _ 93
모방창신, 모방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다 _ 95 / 참고자료 _ 97

미래를 예측하다, 빅데이터와 딥러닝

오이디푸스, 신탁에 맞서다 _99

아폴론 신탁의 끔찍한 예언 _ 100 / 운명에 절규해 스스로 눈을 찌르다 _ 103
운명에 맞선 오이디푸스 _ 105 / 텔포이 신탁의 예지력 _ 106
디지털 예언가, 빅데이터와 딥러닝 _ 108 / 참고자료 _ 110

스마트홈, 가족을 생각하다

안티고네는 왜 죽음을 선택했는가? _111

가족의 비극 한복판에 선 안티고네 _ 112 / 왕의 명령에 당당히 맞서는 안티고네 _ 114
가족에 대한 사랑과 용기 _ 117 / 스마트홈이 여는 세상 _ 119
'스마트홈 플랫폼' 주도권 전쟁이 시작되다 _ 121 / 참고자료 _ 122

스티브 잡스, 소크라테스를 만나다

소크라테스의 두 가지 죄 그리고 답 한 마리 _ 123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되리라 _ 125 / 소크라테스, 지혜의 산파가 되다 _ 127

너 자신을 알라 _ 129 / 소크라테스, 험잡꾼이 되다 _ 130

일흔 살의 소크라테스, 법정에서 서다 _ 132 / 소크라테스, 신념과 맞바꾼 독배 _ 133

스티브 잡스, 소크라테스를 만나다 _ 135 / 어떻게 살 것인가? _ 138 / 참고자료 _ 140

나를 지켜주는 웨어러블, 패션을 입다

불화의 사과와 아킬레우스의 방패 _ 141

불화의 사과 _ 142 / 아킬레우스의 분노 _ 144 / 절친 파트로클로스의 죽음과 헥토르와의
대결 _ 147 / 웨어러블, 나를 지키고 나의 품위를 높여주다 _ 150

패션을 입은 웨어러블, 갈림길에서 서다 _ 153 / 참고자료 _ 155

동양편

날씨, 빅데이터를 만나다

칭기즈 칸과 푸른 군대의 나라 몽골 _ 159

자신을 극복하고 칭기즈 칸이 되다 _ 160 / 칭기즈 칸의 푸른 군대 _ 162 몽골, 겨울 천산을
넘다 _ 164 / 겨울 흑한에 러시아를 점령하다 _ 165 / 여몽 연합군, 태풍 때문에 일본 정벌
에 실패하다 _ 168 / 빅데이터는 새로운 기회의 바다 _ 171 / 참고자료 _ 174

사물인터넷 표준 전쟁의 서막

야누스의 얼굴, 진시황 _ 175

중국을 통일하고 '진시황'이 되다 _ 176 / 짧은 폭정 그러나 긴 여운 _ 181 / 야누스의 얼굴
을 가진 진시황 _ 183 / 사물인터넷 합종연횡과 표준 전쟁의 서막 _ 187 / 참고자료 _ 191

초한 전쟁을 통해 본 노키아의 몰락

항우, 이카루스 패러독스에 빠지다 _ 193

난세, 두 명의 영웅을 낳다 _ 194 / 힘은 산을 뿔 수 있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만하지만...

_ 198 / 유방, 인재등용 vs 항우, 백성의 마음을 잃다 _ 201 / 이카루스의 역설 _ 202

참고자료 _ 205

버닝맨 축제와 IT인의 장자적 삶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장자 _ 207

자유로운 삶을 사는 위로자, 장자 _ 208 / 자유롭게 이리저리 거닐며 노닐다 _ 210

기술을 넘어 도의 경지에 이르다 _ 213 / 창조, 자유, 무소유의 '버닝맨' 축제 _ 215

IT인에게 '장자적 삶'이란? _ 217 / 참고자료 _ 219

스타트업 성공방정식, 린 스타트업

치욕을 딛고 역사에 우뚝 선 사마천 _ 221

궁형의 치욕을 이기고 『사기』를 완성하다 _ 223 /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 _ 224

역사가의 빼어난 노래, 『사기』 _ 226 / 스타트업 전성시대 _ 228

생각은 크게, 시작은 작게 _ 230 / 참고자료 _ 231

인간을 구하라, 재난구조 로봇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다, 자객 열전 _ 233

예양,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다 _ 234 / 진시황을 베려 한 형가와 영화 '영웅' _ 237

효자 섭정, 스스로 얼굴 가족을 벗기고 죽다 _ 241 / 재난구조 로봇, 인간을 대신해 인간을 살

리다 _ 244 / 로봇, 축복인가 재앙인가? _ 247 / 참고자료 _ 250

3초 전쟁, 모바일 결제 전쟁의 승자는?

오나라와 월나라는 왜 원수가 됐나? _ 251

복수의 화신, 오자서 _ 252 / 와신상담의 주인공, 구천과 부차 _ 255 / 군사전략가에서 거상으로, 변신의 귀재 범려 _ 259 / 와신상담 삼성, 폐이 돌풍을 일으키다 _ 261 / 3초 모바일 결제 전쟁의 승자는? _ 265 / 참고자료 _ 267

애플, MS, 구글의 꿈이 시작된 날

정도전의 신의 한 수 _ 269

10년 인고의 세월에서 꿈이 피다 _ 271 / 정도전의 신의 한 수, 이성계를 찾아가다 _ 273
새로운 해가 뜨다, 조선 _ 276 / 임금과 신하 이상의 오랜 동지, 이성계와 정도전 _ 279
미완의 개혁 그리고 500년의 회한 _ 281 / 애플, 몽상가와 천재 엔지니어의 만남 _ 283
한 장의 사진을 본 그날, 마이크로소프트 탄생하다 _ 285 / 동갑내기 두 천재, 구글을 창업하다 _ 287 / 참고자료 _ 290

백تاب에서의 아름다운 인연과 오픈소스 커뮤니티

연암, 우정과 지성의 유쾌한 향연을 즐기다 _ 291

청년기의 우울증을 해학과 글로 이겨내다 _ 292 / 우정과 지성의 네트워크, 백تاب _ 294
『열하일기』로 조선 후기의 별이 되다 _ 295 / 공유와 참여의 대표적 협업 모임, 오픈소스 커뮤니티 _ 299 / 참고자료 _ 302

미래 교육 플랫폼, 무크

서신교육의 일인자 다산 정약용 _ 303

왕의 남자, 다산 정약용 _ 304 / 다산 정약용, 자녀들의 스승이 되다 _ 307
가족을 향한 애절한 사랑 _ 309 / 미래 교육 플랫폼, 온라인 공개수업 무크 _ 311
무크의 미래는? _ 313 / 참고자료 _ 314



IT, 인문을 만나다

역사와 고전으로 엮보는
19가지 IT 키워드



서양편

IT, 인문을 만나다

역사와 고전으로 엮보는
19가지 IT 키워드

서양편



카이사르 암호와 RSA 알고리즘

카이사르, 3월 15일을 조심하라

‘Beware the Ides of March!’란 말을 아는가? Ides(아이즈)는 라틴어로 중간, 즉 15일을 의미한다. 직역하면 ‘3월 15일을 조심하라’는 의미이나 서양에서는 ‘흉사에 대비하라’는 관용구다. 한 예언가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Gaius Julius Caesar에게 암살을 예언했을 때 한 말인데,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에도 이 말이 등장한다. 이처럼 카이사르가 암살된 날이 지금까지 큰 의미로 남겨진 것은 그만큼 그 날이 드라마틱했을 뿐 아니라 그가 고대 로마에 끼친 영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고대 로마의 가장 위대한 영웅 두 사람을 꼽는다면 누가 떠오르는가? 많은 이들이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카이사르를 떠올릴 것이다. 카이사르보다 약

150년 후에 태어난 그리스 철학자이자 저술가인 플루타르코스^{Ploutarchos}는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주요 영웅을 다룬 『영웅전』에서 이 두 사람을 그리스와 로마의 대표적인 영웅으로 칭했다.

셰익스피어는 『영웅전』에서 영향을 받아 『줄리어스 시저』라는 명작을 썼다. 『줄리어스 시저』에서의 시저(카이사르)[▲]는 다소 오만하고 독선적인 부정적인 영웅으로 묘사됐는데,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버나드 쇼는 셰익스피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혹평하기도 했다.

“인간의 악점에 대해서는 그토록 깊이 통찰한 셰익스피어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인물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줄리어스 시저』는 실패작이다.”

카이사르, 세상의 중심이 되다

카이사르는 기원전 100년 로마의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명문 집안이었지만 부유하지는 않았다. 청년기에 귀족파인 술라^{Lucius Cornelius Sulla Felix}와 민중파인 마리우스^{Gaius Marius}의 권력투쟁에 휘말리면서 마리우스의 조카인 카이사르는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술라가 마리우스를 제거하고 권력을 손에 쥐자, 그의 살생부에는 카이사르도 올라갔다. 그러나 술라의 측근들은 어린 소년을 죽이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반대했다. 그러자 술라는 살생부에서 카이사르의 이름을 지우면서 “자네들은 모르겠나?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100명이나 되는 마리우스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술라는 18살인 카이사르에게서 미래 권력자의 모습을 엿본 것이다.

▲ 라틴어로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영어로는 가이우스 줄리어스 시저라고 한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카이사르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이후 해외와 본국을 돌아다니다가 37세(기원전 63년)이 됐을 때 대제사장이라는 요직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젊은 카이사르의 야망과 패기를 알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가 24세 때의 일이다. 카이사르는 소아시아의 로도스 섬으로 가는 중 해적을 만났다. 해적들은 20텔런트(당시 병사 4,300명의 월급 정도 금액)라는 엄청난 몸값을 요구했다. 카이사르는 “네놈들이 누구를 붙잡았는지 모르는 모양이군!”이라며 스스로 몸값을 50텔런트로 올렸다. 덕분에 수형원들이 돈을 구해 오는 38일 동안 그는 포로가 아니라 중요 인물처럼 대우받았다. 잠을 잘 때마다 사람을 보내 조용히 해 줄 것을 명령할 정도였다. 참으로 용기 있고 대담하지 않는가?

카이사르는 몸값으로 50텔런트를 지불하고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가까운 밀레토스로 달려가 배를 빌렸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 해적을 토벌하러 갔다. 그는 해적선을 급습해 50텔런트를 되찾고 해적들을 모두 교수형에 처했다. 그는 몸값을 스스로 올림으로써 목숨을 보장받고 편하게 지냈을 뿐 아니라 돈까지 되찾는 기지와 용기를 발휘했다.

30세가 된 카이사르가 회계 감사관으로서 에스파냐에 근무했을 때의 일이다. 그는 남부 해협 근처의 헤라클레스 신전에 방문했는데, 신전을 참배하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초상 앞에서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카이사르는 혼잣말로 “알렉산드로스는 갓 서른도 안 돼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는데, 서른을 넘긴 내 꼴은 지금 뭐란 말인가?”라고 탄식했다. 당시 카이사르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보며 로마 최고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야망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카이사르는 이 시기에 1,300텔렌트(11만 명의 병력을 1년 동안 이끌 수 있는 금액)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다. 그는 민중파의 대표주자로서 민심을 얻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데 주로 돈을 썼다. 320쌍의 검투사가 등장하는 경기를 자비로 열었고, 민중을 위한 공연과 회식에 거액을 지출했다. 그리하여 카이사르는 민중의 호감을 얻을 수 있었다.

기원전 60년 40세가 된 카이사르는 마침내 집정관(임기 1년의 최고 통치자 2명을 선출)에 선출됐다. 비로소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카이사르는 집정관이 되기 위해 삼두정치(三頭政治)를 만들었다. 당시 로마 최고의 권력자인 폼페이우스(Gnaeus Pompeius Magnus)와 크라수스, 카이사르가 연합해 로마 정치를 좌지우지했는데, 이러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카이사르는 자신을 싫어하던 원로원의 반대를 이겨내고 압도적인 표차로 집정관에 당선됐다.

집정관 취임 두 달 뒤 카이사르는 ‘율리우스 농지법’을 발의했다. 이 농지법은 국유지를 분배해 로마 시민에게 영구 임대하는 것으로, 로마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원로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삼두정치를 등에 업고 농지법이 통과됐다.

당시의 상황은 핵심 원로원 중 한 명인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드러난다. 이 편지에는 “이제 로마에서 할 일이 없을 것 같으니 별장이나 가서 집필 활동에 전념할까 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원로원이 무기력하게 농지법을 저지하지 못한 심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키케로와 카토 등 공화정을 지지하는 원로원 의원들은 카이사르의 독주를 보며 불안해했고, 이러한 원로원과 카이사르의 갈등은 카이사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됐다.

1년간의 집정관을 마친 카이사르는 기원전 58년 갈리아 총독이 돼 갈리아

로 떠났다. 이후 8년간 갈리아 총독으로 있으면서 800개가 넘는 도시를 함락하고 300개 부족을 제압했다. 그 결과 갈리아 전 지방(라인 강을 경계로 오늘날 서유럽 거의 전체)을 로마 영토로 편입시키는 큰 공을 세웠다. 심지어 브리타니아(영국)도 점령지에 포함됐다.

이에 대한 전쟁 기록이 『갈리아 원정기』다. 카이사르가 직접 쓴 『갈리아 원정기』는 사료로서의 가치도 크게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수준 높은 문장력을 보여 주는 저작으로도 유명한데, 핵심 원로원이자 뛰어난 문장가이기도 했던 키케로는 이 저술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이 책은 모두 알몸이고 순수하며 인간이 몸에 걸치는 의복과도 비슷한 미사여구를 죄다 벗어 던졌을 때 생겨나는 매력으로 충만해 있다. 카이사르는 역사를 쓰려는 자들에게 사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썼을지 모르나 사려 깊고 현명한 이들에게는 역사를 쓸 의욕마저 꺾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알레시아 전투’는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군인이자 전략가로서도 그의 능력을 입증한 전투다. 기원전 52년 카이사르가 이끄는 5만 명의 로마군과 베르킨게토릭스의 34만 명의 갈리아 부족 연합군 간의 대규모 전투를 끝으로 갈리아 지방이 로마에 완전히 복속됐다. 이 전투가 유명한 것은 로마군이 성안에 있는 갈리아군을 공격했을 때 26만 명이나 되는 지원군이 다시 로마군을 포위한 불리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이다. 카이사르는 양쪽에 2개의 방벽(바깥쪽 방벽 길이는 21Km)을 빠르게 쌓아 양쪽의 합류를 막고 공격에 대비했다고 전해진다.



그림 1 카이사르에게 항복하러 온 베르킨게토릭스(Vercingetorix throws down his arms at the feet of Julius Caesar), 리오넬 로이어(Lionel Royer). ▲

카이사르는 두 차례에 걸친 협공을 막아낸 후 세 번째 갈리아의 총공세 때 기병을 활용한 효과적인 후위 공격으로 대군을 무찌르고 승기를 잡았다. 갈리아 총사령관 베르킨게토릭스도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양쪽에서 포위당한 상태에서도 정예부대의 헌신적인 전투와 카이사르의 전술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쯤에서 그의 리더십을 살펴보자. 갈리아 정복의 일등공신은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장군들과 병사들이었다. 카이사르는 이들의 충성을 이끌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병사들에게 아낌없이 포상을 줌으로써 부를 나눠 가졌고, 모든 위험에서 솔선수범해 어떤 노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몸이 가날프고 간질병을 앓고 있었지만 이를 핑계 삼지 않았다.

▲ 출처: <https://goo.gl/yXKz4A>

한번은 비바람을 피해 사람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곳을 찾았다. 그는 그 자리를 가장 약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며 오피우스에게 그곳을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잤다. 이런 리더십이 갈리아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몇 년 뒤 그가 로마를 차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복에 로마 시민은 열렬히 환영했다. 반면 원로원은 카이사르의 독재 시대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에 원로원은 폼페이우스를 적극적으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었다. 그리고는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무장을 해제한 채 로마로 즉시 귀국하라는 원로원 최종 권고를 내린다. 이를 어기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했다. 원로원 명령을 따라 로마로 가면 처형될지도 모르고, 이 명령을 어기면 반역죄를 뒤집어쓸 처지에 놓인 것이다.

기원전 49년, 고심 끝에 그는 충성스러운 군단병들과 이탈리아의 북부 경계인 루비콘 강을 건넜다. 여기서 그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비장한 연설을 한 후 자신의 조국 로마로 쳐들어갔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은 로마를 비우고 그리스로 도망갔다. 전열을 정비해 공격하면 다시 쉽게 로마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기원전 48년 파르살로스 전투에서 카이사르에게 패배한 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도망간 폼페이우스는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지시로 애석하게도 암살되고 말았다.

로마의 주인이 된 카이사르는 독재관에 취임했다. 독재관은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보통 큰 전쟁 때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만든 임시직이었으나 카이사르는 스스로 종신 독재관이 돼 사실상 황제와 같은 지위를 누렸다. 그런데도 명목상으로는 공화정 체제를 유지했다.

카이사르는 로마를 개혁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율리우스력을 만들고 화폐를 통일하였으며, 복지 정책 등 로마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사법 개혁을 단행했다. 개혁정책의 성공으로 대제국 로마의 발판을 마련하며 정치가로서도 커다란 업적을 이루었다. 폼페이우스 같은 동시대 사람은 물론이고 한니발, 스키피오, 알렉산드로스 대왕 같은 고대 영웅도 정치가로서 이름을 날릴 기회를 얻지 못했음에도 말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귀족들과 원로원은 철저히 소외됐고 이들의 불만은 커져갔다.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려 한다는 불안감이 극에 달하자 원로원을 중심으로 그의 암살을 모의하기 시작했다. 철저한 공화정 신봉자이자 카이사르의 충애를 받던 마르쿠스 브루투스^{Marcus Junius Brutus}와 데키무스 브루투스^{Decimus Junius Brutus Albinus}가 암살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은 힘을 얻었다. 결행일은 3월 15일, 원로원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다.

Beware the Ides of March

기원전 44년 3월 15일, 운명의 날이 밝았다. 아침에 카이사르 아내 칼푸르니아는 그가 자신의 품에 안겨 죽는 불길한 꿈을 꾸었다며 원로원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붙잡았다. 카이사르도 불안해 예언자에게 물으니 불길한 전조가 보인다고 말하자 원로원 회의를 연기하려고 했다.

이때 데키무스 브루투스가 집으로 찾아와 원로원을 홀대했다는 비난을 받을 계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카이사르를 설득했다. 사흘 후엔 카이사르가 직접 출정하는 파르티아(오늘날 이란 지역) 원정도 예정돼 있어 카이사르는 원로원 의사당이 있는 폼페이우스 대극장으로 향했다.

원로원 의사당에 도착하기 전, 브루투스 일파와 친교가 있던 아르테미도로스가 카이사르 암살 모의를 우연히 듣고는 두루마리에 그 음모를 적어 카이사르에게 전하며 말했다.

“카이사르여, 이것은 직접 읽으시되 빨리 읽으셔야 합니다. 중대하고도 그대와 직접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카이사르가 그 두루마리를 읽으려 했지만, 많은 사람이 그와 면담하려고 하는 바람에 읽지 못하고 그냥 의사당으로 들어갔다. 그때 원로원 의원인 킬리우스가 카이사르에게 다가와 추방당한 자신의 형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며 카이사르의 토가(袈裟)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아래로 끌어내렸다. 공격 개시의 신호였다. 카스카를 필두로 원로원 의원들이 다가오면서 단검을 꺼내들어 카이사르를 찔러댔다. 카이사르는 뒤로 물러서며 방어하려 했지만 이미 이들에게 둘러싸여 역부족이었다.



그림 2 카이사르의 죽음 (The Death of Caesar), 빈첸초 카무치니(Vincenzo Camuccini). 자신의 정적이었던 폼페이우스 석상 앞에서 원로원 의원 14명에 의해 살해당하는 카이사르. ▲

▲ 출처: <https://goo.gl/39C45f>

자신이 총애했던 브루투스가 단검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체념하며 “아들아 너마제!”라는 말과 함께 토가를 머리 위로 뒤집어쓰고 죽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죽은 장소는 바로 자신의 정적이었던 폼페이우스의 석상 앞이었다. 이때 그의 나이 55세였다.

기록에 따르면 카이사르를 죽이는 데 60여 명의 원로원 의원들이 가담하였으며 이 중 14명이 공격해 칼로 23번 찔렸다. 브루투스와 원로원파는 광장으로 나가 “로마 사람들이여, 우리는 다시 자유로워졌다!”라고 외쳤다.

마지막 순간에 카이사르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논란이 많다. 수에토니우스 Suetonius가 쓴 『황제전』[■]에는 “아들아, 너마제!”로 돼 있고, 플루타르코스는 카이사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암살자 사이에서 브루투스를 보자 자신의 토가를 끌어올려 머리 위로 뒤집어썼다고 적었다. 카이사르가 토가로 얼굴을 가린 것은 ‘적어도 체면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에서 나오는 대사에서는 그 유명한 “브루투스, 너마제”로 표현하며 카이사르의 죽음을 극적으로 그렸다. 이때 브루투스가 일반적으로는 마르쿠스 브루투스로 알려졌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누군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테키무스는 카이사르의 유언장에 제2 상속자로 지정될 만큼 카이사르가 총애했던 사람이었고, 마르쿠스도 카이사르 애인 세르빌리아의 아들이고 양아들로 삼을 만큼 아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는 희곡 『줄리어스 시저』에서 브루투스를 옹호하며 이렇게 썼다.

왜 시저에게 반기를 들었느냐고 묻거든, 이것이 나의 대답이오. 내가 시저를 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시저가 죽고 만인이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시저가 살고 만인이 노예의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하시오?

■ De Vita Caesarum, 수에토니우스가 121년에 쓴 전기로, 카이사르와 11명의 로마 황제를 다루었다.